

趙 敬 植*

中都市 零細民地域 家族計劃 實態調查

△ Ⅰ. 調查對象 및 方法
Ⅱ. 調查結果
▽ Ⅲ. 建議事項

本稿는 中小都市零細民에게 보다 效率的으로 家族計劃을 普及하기 위한 方案을 摸索하기 위하여 1973年 全南 麗水市 鳳江洞에 居住하는 零細民을 對象으로 調查를 實施하였던 바 그 主要結果를 收錄한 것이다.

Ⅰ. 調查對象 및 方法

우리 나라 25개 中小都市에 居住하는 約 270萬名의 人口中 어느 층에 속하는 住民을 零細民으로 看做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一定한 定義가 아직 없으며 또한 零細地域에 居住한다 하더라도 社會·經濟的인 水準에 따라 여러 가지 類型으로 區分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本調查에서는 居住地域內의 經濟水準·保健狀態 및 社會環境 등이 저조한 集團을 零細民으로 規定했다.

全羅南道 3個市中 (光州市除外) 本調查地域(麗水市)의 경우 1965年度의 人口增加率이 1.7%였으나 1973年度에 2.3% (總人口 121,000名)로 急增하여 이에 대부분이 麗水市 변두리인 鳳江洞으로 移入하였다.

麗水市 鳳江洞(零細地域)의 特性을 보면 아래와 같다.

- 1) 零細民이 全體人口의 約 80%이며,
- 2) 1973년 9월까지 家族計劃 實施率이 15% (全國: 36%)에 불과하고,
- 3) 調查地域中 15~20班을 除外한 1~14班 및 21~27班은 全體零細民으로 集團化되어 있었음.

本 調查는 麗水市 鳳江洞에 居住하고 있는 零細人口 총 5,198명 중 20~44歲의 有配偶可妊女性 約 460名을 對象으로 全南 管內 家族計劃 先任指導員을 現地 調查員으로 하여 1973年 10月 5日 부터 10月 7日까지 3日間에 걸쳐 設計된 調查票에 의해서 面接調查를 實施했다.

Ⅱ. 調查結果

1. 家族計劃의 知識·態度 및 實踐

家族計劃用語의 最初 知識經路: 零細地域에 居住하는 大部分의 住民은 家族計劃이란 말은 많

* 家族計劃研究院 主任研究員

이 들었으나 實際的으로 家族計劃이 무엇을 意味하는지 알 수 없을 것으로 간주하고, 「아주머니께서는 저를 만나기 전에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키워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신일이 있습니까?」하고 물어 보았던바 全體 應答者中 85.0%(서울시 零細民: 97.2%)가 「들은 일이 있다」고 대답했다.

最初 知識經路를 보면 應答者中 47.1%가 保健所에서, 15.5%가 라디오에서, 14.0%가 친지 및 이웃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이는 零細民의 弘報物 購賣力이 아주 낮음을 보여 준다 (Table 1 參照).

그러나 1970년 以前에 家族計劃 標語인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자」가 요즘은 「둘만 낳아 잘 기르자」로 變更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弘報活動을 좀더 強化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人的 接觸 (Personal Communication)이 全體의 71.9%, 非人的 接觸 (Mass Media)이 全體의 24.4%로써 人的 接觸에 의한 經路의 效果가 컸음을 알 수 있었다.

家族計劃에 對한 態度: 家族計劃에 對한 態度를 알아보기 위해 「아주머니께서는 피임하는 것을 贊成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하고 물었던바 全體의 76.6% (서울시 영세민 88.1%)가 「贊成한다」고 대답했으며 贊成하는 主要理由는 「子女를 더 원하지 않기때문」이 60.9%, 「現在 經濟的으로 困難하므로」가 24.0%였다. 피임하는 것을 反對하는 婦人이 全體의 20.2%로써 大部分 反對 婦人中 93.8%가 子女(아들)를 더 원하기 때문에 現在 避妊方法을 使用하지 않는 것이 主要理由로 나타났으므로 子女調節에 대한 弘報活動이 零細地域에서는 아직 미흡하다고 본다 (Table 1 參照).

家族計劃 標語에 대한 意見: 人的 接觸 또는 「매스 미디어」 중 어느 편을 통했던지 간에 家族計劃 標語에 대하여 零細住民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의 與否는 家族計劃 對象者 (婦人 및 男便)가 子女數를 決定하는데 主要한 要因이 되며, 男兒選好度を 測定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따라서 應答者, 應答者의 男便, 親友 및 親戚의 意見を 물어서 이의 差異를 分析하여 보았다.

즉,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를 贊成하는 分布는 應答者에서 全體의 78.5%, 應答者의 남편에서 全體의 73.2%, 應答者의 親友 및 親戚에서 全體의 54.3%였다 (Table 1 參照).

한편 年齡別로 家族計劃標語에 대한 態度를 보면 出產水準이 가장 높은 30대 年齡層에서 反對하는 比率이 제일 높았으며, 子女를 이미 3~4명 가진 婦人層에서는 贊成率이 가장 높았다.

婦人의 教育水準은 學歷이 높으면 높을수록 점차적으로 贊成率이 增加되며, 子女가 많을수록 家族扶養의 負擔이 크기 때문에 家族計劃 標語에 대한 支持率이 上昇하고 있었다.

家族計劃實施에 대한 議論與否: 避妊을 實施하는 데 가장 주된 役割을 하는 主要 議論者가 누구인지를 물었던 바 「避妊實施에 대해 議論한 일이 없다」고 應答한 婦人이 全體의 43.7%이며, 議論한 일이 있는 婦人의 경우, 「男便과 議論한 일이 있다」가 50.5%로써 避妊實施의 主導權은 應答者의 男便에게 있었다 (Table 1 參照).

그러므로 家族計劃 避妊方法의 意思決定은 그 家口의 應答者 中 男便에게 있기 때문에 家族計劃의 必要性에 대한 弘報活動을 男性(男便)에게 集中的으로 展開해야 한다.

家族計劃 實踐意思: 調査當時 避妊非實施者에게 <앞으로 避妊方法을 원한다면 주로 어떤 方法을 원하며 調査時點부터 언제쯤 使用하겠는지>의 與否를 알아 본 바, 「避妊方法을 원하지 않는다」가 全體의 45.0%였다. 이 중 大部分 避妊方法의 「不適應 때문에 避妊을 忌避하고 있음」이 避妊方法拒否의 重要原因이 되고 있다.

避妊을 「實施하겠다」고 應答한 婦人中 <무우프를 使用하겠다>가 全體의 過半數 以上인 59.2%, 그 다음이 먹는 避妊藥으로 전체의 23.7%였음은 注目 할만하다.

避妊方法を <1個月以內에 使用하겠다>가 全體의 15.4%, <3個月以內>가 34.3%, <6個月以內>가 55.6%, <1年以內>가 72.2%로써 避妊方法에 대한 段階的인 對象者를 選定하여 避妊普及方法을 講究해야 할 것이다 (Table 1 參照).

家族計劃 實踐現況 : 1973년 10월 調查當時의 家族計劃實施率을 보면 實施中인 婦人이 全體의

Table 1. Summary of Respondents KAP of Family Planning

Subject	Measures of % of respondents
Source of knowledge on family planning	
Health center(Field workers)	47.1
Mass-media	15.5
Relative and neighbors	14.0
Others	8.4
Attitude towards family planning	
Approve	76.6
Disapprove	19.3
Attitude towards family planning slogan	
<u>Respondents</u>	
Approve	78.5
Opposed	18.4
<u>Husbands</u>	
Approve	73.2
Opposed	22.5
<u>Friends and relatives</u>	
Approve	54.3
Opposed	29.5
Decision on contraceptives	
Discussed with Husband	50.5
Discussed with Others	5.8
Willingness to practice family planning	
Don't want	45.0
Want to practice	55.0
Respondent's practice in family planning	
Practiced in past	15.5
Currently practicing	25.8
Loop	9.7
Oral pill	7.5
Condom	3.4
Sterilizations	2.4
Main sources of contraceptives supply	
Health center	74.3
Hospital and drug store	17.0
Number	414

25.8% (全國: 36%, 서울시零細民: 33.9%)이었으며, 過去 實施한 婦人이 全體의 15.5% (全國: 19.0%, 서울시 零細民: 23.7%)로 低調한 實施率을 보였다.

한편 現 實施者中 大部分이 女性 避妊法 (루우프: 37.4%, 먹는 避妊藥: 29.0% 및 週期法: 8.4%)을 使用하고 있으며, 男性 避妊法인 精管切除手術은 불과 全體의 6.5%이므로 男性에 대한 家族計劃 普及方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年齡階層別 家族計劃 實施率을 보면 20代 및 40代 年齡層에서 보다 30代 年齡層에서 現在 實施率이 높았다. 즉 35~39세의 年齡群이 全體의 36.7%, 30~34세 年齡群이 全體의 33.1%로서, 全體 實施率 (25.8%) 보다 높았다.

이와같은 主要理由는 젊은 婦人에서는 원하는 子女數를 두지 못하였고, 老年한 婦人에서는 比較的 妊娠能力이 喪失된 比率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避妊方法을 現在 實施中이거나 過去에 實施한 經驗이 있는 比率은 教育水準에 따라 크게 影響을 미치고 있다.

즉, 高等學校 以上の 學歷을 가진 婦人의 現在 實施率은 33.3%, 中學校 및 國民學校의 婦人에서는 各各 31.3%와 27.9%, 無學인 婦人은 12.2%였다.

특히 零細地域의 住民들은 教育水準이 낮을수록 家族計劃 實踐率이 低下되고 있다. 이에 適合한 啓蒙教育이 要望된다.

家族計劃 實踐率은 現存子女數와 密接한 關係가 있었다. 즉, 4명의 子女를 가진 婦人群에서 現在 實施率이 제일 높았다.

즉, 現在 實施中인 比率은 現存子女가 3~4名群에서 38.0%, 5~6名群에서 31.4%, 1~2名群에서 10.9%였으며, 過去에 實施한 經驗이 있는 比率은 5~6名群에서 25.3%, 3~4名群에서 17.2%, 1~2名群에서는 不過 4.7%였다.

避妊藥劑 供給源: 現在 避妊方法을 使用中인 者와 過去 避妊을 實施한 經驗이 있는 應答者에게 避妊方法 供給處를 물었던 바, 全體의 74.3%가 「保健所에서 避妊藥劑 供給을 받았다」고 應答했다 (Table 1 參照).

2. 家族生活環境

出生地: 家族計劃과 居住地하고는 밀접한 關係가 있어 避妊實踐樣相이 多角的으로 變化될 수 있겠으나, 本調查結果에서는 零細地域으로 轉入하게 된 要因과, 出生地域의 社會·文化的인 影響에 의해서 子女數에 대한 觀念이 變化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 및 그들 男便의 過半數 以上이 (婦人 65.0%, 男便 61.8%) 農村地域에서 出生하였고 中小都市 (대부분이 麗水市)에서 出生한 婦人은 全體의 31.4%, 男便은 34.1%였다 (Table 2 參照).

自家所有與否: 零細地域의 住宅狀態는 대부분이 판자집과 움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一般 住宅하고는 그 樣相이 判異하다.

그러므로 住宅形態를 갖추지 못하였어도 寢食을 할 수 있으면 住宅으로 보았다.

이러한 條件下에 自宅所有者는 全體의 46.9%이며, 專貰가 29.2%, 月貰가 21.7%로 全體의 半數 以上이 그나마 자기집의 所有權이 없었다 (Table 2 參照).

理想的인 家族構成: 응답자의 半數 以上인 64.8%가 核家族制를 원하고 있었으며, 이에 比하여 夫婦, 媳父母 및 丈人, 丈母로 構成되는 家族型은 全體의 20.8%, 夫婦, 媳父母 및 親戚(兄弟)까지도 같이 生活하는 家族型이 全體의 7.2%, 形便에 따른 家族構成을 理想視하는 비율은 全體의 7.2%이었다 (Table 2 參照).

生活水準 : 零細地域은 經濟的으로 低所得層이 密集(Colony) 되어 있기 때문에 生活水準에 대한 經濟能力이 대단히 저조하다.

즉 「아주머니택에서 현재 시계, 라디오, 재봉틀, 양복장(목재, 철재), 전기다리미, 석유콘로, 자전거, 기타 등의 사항을 가지고 계십니까?」라고 質疑하였던바 상기 물건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가구가 전체의 4.6%이었으며 家口當 平均 所有數는 4種이었고, 4種以上을 所有하고 있는 家口는 半數에 불과하였다.

應答者의 生活評價 : 應答者의 主觀的인 생각으로 應答者가 自身의 現在 生活水準을 直接的으로 評價한다는 것은 資料의 信憑性이 대단히 약하다고 보겠으나 零細地域에서는 住民의 環境이 大同小異하기 때문에 다소 믿을만한 資料라고 본다.

즉, 應答者 自信의 生活程度가 零細地域에서 「上流에 屬한다」고 대답한 婦人은 전체의 6.2%인 반면에 「下流에 屬한다」고 대답한 婦人은 전체의 過半數 以上인 53.4%였다 (Table 2 參照).

家口當 月平均 收入 : 月收入에 있어서 15,000원 以下가 전체의 39.1%를 차지하며 15,000원 以上이라도 대부분이 15,000~20,000원에 屬하며 전혀 月收入이 없는 家口가 전체의 3.6%이었다.

1973년도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의 韓國統計月報에 의하면 都市勤勞者 平均 소득이 家口當 月平均 46,900원으로 보고되어 있음에 비추어 本調査地域에서는 1人當 平均 月收入은 2,300원 (全都市 8,800원)으로 매우 낮은 所得으로 家計를 營爲하고 있었다 (Table 2 參照).

最終兒 分娩場所 및 介助者 : 最終兒 分娩經驗이 있는 399名의 零細婦人에게 最終兒 分娩을 어디서 하였는지를 質疑하였던바 全體의 94.7%가 「家庭에서 分娩하였다」고 應答하여 母子保健事業의 취약점을 보여 주었다 (Table 2 參照).

Table 2. Summary of Socio-Economic Status of Respondents

Subjects	Measures of % of respondents
Place of birth	
Urban	34.1
Rural	65.0
Status of living house	
My home	46.9
Ideal type of household	
Nuclear family	64.8
Socio-economic appraisal of respondents family	
Upper	6.2
Middle	40.4
Lower	53.4
Average monthly income	
Less than 15,000 won	39.1
Place of last delivery*	
Home	94.7
Hospital or clinic	5.3
Attendants at last delivery*	
Non-professional	74.9
Number	414

* Excludes 15 women who had not experienced last delivery

最終兒 分娩時 分娩介助者의 現況을 보면 非醫療人에 의한 介助비율이 전체의 62.4%; 醫療人의 介助가 전체의 25.1%에 불과하며 아무에게도 도움없이 혼자서 分娩 하였다가 전체의 12.5%로 우리나라의 母性死亡率이 높은 要因의 一面을 보여 주었다 (Table 2 參照).

특히 分娩場所 및 分娩介助 現況은 대상자의 教育水準 및 生活程度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本 調査地域 (零細地域)에서 여실히 나타냈다.

3. 家族計劃 弘報接觸

家族計劃모임 參席與否: 政府에서는 民間團體인 大韓家族計劃協會의 後援에 의해서 어머니會 組織을 통하여 地域單位로 數次의 모임을 가져 왔으나 都市地域에서의 家族計劃모임은 극히 드물고 零細地域에서는 더구나 없다고 본다.

本 調査結果에 의하면 전체 應答者중 14.0% (58名)만이 「最近에 家族計劃 關係 (要員의 集團 啓蒙) 모임에 참석한 일이 있다」고 하였으며 참석한 일이 없는 應答者中 「家族計劃 關係모임이 없었다」가 전체의 39.5%, 「가족계획에 대한 關心이 없기 때문」이 전체의 33.7%, 「바쁘기 때문」이 전체의 17.2%였다. 따라서 영세지역에서 弘報活動(家族計劃 모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영세민이 모임에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이 地域에 家族計劃要員(看護員 및 社會事業 要員)을 增員하여 家庭訪問에 의한 個人接觸을 강력히 수행하면 보다 效果的인 것이다.

家族計劃 弘報油印物 接觸: 零細地域의 주민에게 家族計劃 弘報資料가 어느정도 보급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아주머니께서는 지금까지 가족계획에 관한 유인물을 받았거나 보신적이 있습니까?」라고 質疑하였던바 전체의 70.5%가 「전혀 없었다」고 應答하여 零細地域에 대한 弘報事業이 강력히 要求된다 (Table 3 參照).

零細地域에서는 신문 및 잡지등의 購讀率이 약하며 라디오 및 텔레비존등의 視聽率이 적기때문에 政府에서 無料普及하는 啓蒙宣傳物을 대량으로 製作配布하여 家族計劃의 重要性을 強調하여야 할 것이며 매스미디어에 대한 普及이 要求된다고 본다.

醫學常識 認知度: 零細地域에서의 醫療機關의 利用度 및 家族中 發病時에 患者의 處理與否가 가장 빈약하다고 보며 특히 家族計劃 및 母子保健의 受惠도가 극히 미진하여 개인의 健康管理가 소홀할 것으로 看做하고 다음과 같은 設問을 插入하였다.

즉, 「아주머니 이웃에 醫學常識에 대해서 알맞게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質疑하였던바 전체의 86.7%가 「전혀 없다」고 應答하였으므로 零細地域의 醫療施設 및 醫療人의 分佈가 희소하다는 것을 立證하고 있다 (Table 3 參照).

Table 3. Degree of Exposure to I. E. & C. of Family Planning

Subjects	Measures of % of respondents
Experience of attendance at family planning meeting	
Never attended	86.0
Contact with I. E & C materials	
Never contact	70.5
Advise about medical problems	
None	86.7
Number	414

4. 人工妊娠中絶

人工妊娠中絶에 대한 意見: 「만일 어떤 아주머니가 원치않은 임신이 되었을때 그 아주머니는 그 임신을 어떻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던 바 「유산을 시켜야 한다」가 전체의 半數 以上인 68.6%, 人工妊娠中絶의 必要性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을 부각시키고 있었다.

理想的인 人工妊娠中絶 時期: 「잘 모르겠다」가 23.2%였다. 그리고 人工妊娠中絶時期에 관한 設問을 대하여 「妊娠後 2個月 以內가 理想的인 人工妊娠中絶時期」라고 응답한 부인이 전체의 56.0%, 「妊娠後 3個月 以內」가 전체의 77.7%로써 대부분이 人工妊娠中絶이 母性保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認知하고 있었다 (Table 4 參照).

人工妊娠中絶實施가 영세민의 가족계획사업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칠것인가를 알기 위한 다음과 같은 設問, 「아주머니께서는 앞으로 妊娠이 되었다면 流産을 시키겠습니까? 시키겠다면 무료라면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유료라도 시키겠습니까?」하고 물었던바 총 414名の 응답자중 「시키지 않겠다」가 53名, 「경우에 따라서 하겠다」가 114名, 不妊이 53名이며 「꼭 시키겠다」는 194名中 「無料라면 시키겠다」가 전체의 20.0%, 「有料라도 시키겠다」는 응답자중 「3,000원 미만이면 시키겠다」가 전체의 70.7%로써 人工妊娠中絶事業의 良好한 展望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서 零細민에게는 經濟水準이 저조하기 때문에 막상 有料라면 人工妊娠中絶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願치않는 임신을 豫防하고 避妊失敗者에게 무료로 人工妊娠中絶을 제공할 수 있는 政策支援이 필요하다고 본다.

人工妊娠中絶 場所 및 費用知悉: 人工妊娠中絶을 시키는 場所를 알고 있는 應答者가 전체의 39.1%로써 個人病院을 알고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3분의 2인 75.4% 이었다 (Table 4 參照).

人工妊娠中絶 費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가 전체의 과반수에 가까운 49.0% 이었으며 費用을 알고 있는 응답자中 3,000원미만으로 알고 있는 對象者가 전체의 57.4%로써 人工妊娠中絶 手術費用을 저렴한 가격으로 認知하고 있었다 (Table 4 參照).

Table 4. Summary on Attitude Towards Induced Abortions

Subject	Measures of % of respondents
Opinion on induced abortion	
Should have on abortion	68.6
Ideal time at induced abortion	
Within one month	13.0
Within two months	56.0
Within three months	77.7
Intention to induced abortion in future	
Will not have	12.8
Knowledge about place of induced abortion	
Don't know	10.9
Knowledge of induced abortion expenses	
Don't know	49.0
Number	414

그러나 實際的으로 현재 人工妊娠中絶費用은 認知하고 있는 비용보다도 높은 (5,000원 이상) 手術費 및 治療費를 받고 있으므로 영세지역주민에 한하여 低廉한 費用으로 人工妊娠中絶을 받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5. 應答婦人の 社會・人口學的 諸特性

年 齡 : 應答婦人の 年齡分布를 보면 20~29歲群이 전체의 35.5%, 30~39歲群이 전체의 46.9%로, 平均 年齡이 32.8歲로 算出되었다 (Table 6 參照).

對象婦人の 男便年齡分布는 30~39歲群이 전체의 51.0%, 40~49歲群이 전체의 31.2%이며, 平均 年齡은 37.3歲로써 婦人の 平均 年齡 (32.8歲)보다 4.5歲가 높았다 (Table 5 參照).

이는 서울시 영세민의 婦人の 平均 年齡 (31.9歲)과 비슷하다.

Table 5. Summary of Demographic Indices of Respondents

Subjects	Measures of % of respondents
Age	
Under 24 yrs.	12.8
Under 34 yrs.	64.0
Under 44 yrs.	96.0
Education	
No education	15.6
Primary School	59.9
Middle school or above	24.5
Age at 1st marriage	
Under 17 yrs.	7.2
Under 20 yrs.	53.1
Under 23 yrs.	87.4
Number of pregnancies	
Under 3 times	40.8
Under 5 times	62.4
6 times and above	26.0
Number of living children	
One child	16.4
Two children	18.1
Three children	23.7
Four children	18.4
Five children or more	24.5
Ideal number of children	
One child	14.7
Two children	67.9
Three children	15.5
Number	414

教育水準 : 응답한 婦人中 無學이 전체의 15.6%, 國民學校 水準이 전체의 59.9%, 中學校以上 水準이 전체의 24.5% 이었으며 그들의 男便의 教育水準은 無學이 전체의 3.6%, 國民學校가 전체의 30.9%, 中學校 以上이 전체의 65.4%로, 一般 婦人 및 男便의 教育程度보다 훨씬 낮았다 (Table 5 參照).

職業 : 零細住民의 職業을 파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며 또한 職種을 알아내기는 더욱 어려우므로 本 調査에서는 婦人의 結婚 前後의 職業有無 및 男便의 職種變更回數, 全體從事 期間 등을 알아 보았다.

부인의 結婚前의 職業有無은 전체의 8.0%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結婚後에는 전체의 93.0%가 「아무일도 안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男便의 職業有無를 보면 調査當時 (대부분이 零細漁夫, 零細商人) 「일을 하고 있다」가 전체의 76.3%이었으나 대부분 職業의 安定性이 희박한 單純勞動에 불과하였다.

結婚 : 本 調査 當時 應答者의 結婚狀態를 보면 正式結婚하여 부부생활을 하는 비율이 전체의 96.6% 이며, 同居與否는 「함께 살고 있다」가 전체의 95.2%였다.

특히 再婚率은 전체의 3.6% 이었으며, 結婚生活을 10年以上 한 婦人이 전체의 半數 以上인 57.0%였다.

한편 婦人들의 初婚年齡은 農村婦人들의 初婚年齡 보다 빨라서 平均 20.6歲였다 (Table 5 參照).

出產現況 : 서울地域 영세민들의 경우에는 平均 出產兒數 및 人工妊娠中絶 경험율이 높았으나 本 調査地域 零細民에 있어서는 婦人當 平均妊娠回數가 4.3回, 婦人當 平均出產回數가 3.4回, 人工妊娠中絶 경험율이 29.0% (平均 0.6回)였다 (Table 5 參照).

妊娠能力 : 對象 婦人 自身이나 그들의 男便이 身體의 여권으로 볼 때 妊娠을 할 수 있는지의 與否를 알아보았던바 전체의 83.3%가 「아이를 가질 수 있었으며」, 전체의 11.1%가 「결혼 후 3

Table 6. Summary on Averages of Socio-Demographic Status

Subjects	Averages
Living house (No. of rooms)	2.0 rooms
Material objects owned	4.2 kinds
Average monthly income	12,918 won
Age of respondents	32.8 yrs.
Age of husbands	37.2 yrs.
Age at 1st marriage	20.6 yrs.
Number of pregnancies	4.3 times
Number of deliveries	3.4 times
Number of induced abortion	0.6 times
Number of household member	5.6 persons
Number of living children	
Sons	1.7 sons
Daughters	1.5 daughters
Number of children attending school	
Boys	0.8 boys
Girls	0.6 girls
Ideal Number of children	
Sons	2.0 sons
Daughters	1.4 daughters

년이 지나도 妊娠經驗이 없다」든가, 「出産 및 流産後 3년이 지나도 妊娠이 아직 안된다」든가, 「잘 모르겠다」든가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Table 5 參照).

平均 子女數 및 家口員數: 平均 家口員數는 男子가 2.9명, 女子가 2.7名 (全體 5.6名)으로 서울 영세지역의 平均 家口員數 (全體 5.1名) 보다 약간 많으며 平均 現存 子女數는 3.2名 (서울 영세민 2.8名), 婦人의 平均 學童兒數는 1.4名, 理想的인 子女數가 3.4명 (아들: 2.0名, 딸: 1.4名)으로 서울 영세민의 理想的인 子女數 2.9名 보다 높았다 (Table 5, 6 參照). 이는 1973년도 다목적 실태조사 結果의 理想的인 子女數 3.1名 (서울 2.8名, 기타 都市 2.9名, 農村 3.4名)보다도 높다.

Ⅲ. 建 議 事 項

1. 中小都市 零細民에게는 家族計劃弘報活動이 저조하여 避妊에 대한 知識 및 實踐率이 낮으므로 零細地域에 알맞는 家族計劃 弘報油印物을 大量 製作配布하여야 하며 結婚初期에 “돌난방아 잘 기르자”라는 標語를 注入시키어 子女調節에 對한 觀念을 갖게하여야 한다.

또한 零細地域단을 專擔하는 家族計劃要員을 分割 常駐시키어 零細地域 家族計劃 어머니會를 構成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零細地域의 男性에게 家族計劃의 必要性을 強調(集團啓蒙)시키어 自發的으로 避妊法 (정관수술 및 콘돔 등)을 使用하도록함이 바람직하다.

2. 번두리 家族計劃對象者에게는 家族計劃要員의 家庭訪問回數가 적어서 保健醫療常識에 대한 知悉도가 빈약하므로 零細地域 常駐 家族計劃要員으로 하여금 夜間 家庭訪問을 하도록 하며 특히 子女數가 2名以上으로 婦人의 年齡이 30歲未滿인 對象者의 名單을 作成하여 체계적인 가정방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零細民에게는 經濟力 및 教育水準이 낮으므로 不意의 妊娠을 母子保健法 範圍內에서 無料人工妊娠中絶을 제공하여야 하며 零細地域에 家族計劃避妊惠澤을 쉽게 받을 수 있는 醫療網을 增設시켜야 한다.

4. 住宅構造 및 家口員構成이 조밀하며 分娩還境 및 醫學常識이 빈약하므로 經濟水準에 立脚한 家庭環境改善이 要望되며 安全分娩率을 上昇시킬 수 있는 保健教育의 強化 및 적재적소에 醫療機關을 설치하여 언제든지 수시로 醫療惠澤(家族計劃避妊普及)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母子保健 專門要員(助産員)으로 하여금 無料分娩介助를 하게 하여야 한다.

5. 零細地域 대부분의 住民은 젊은 (20代 및 30代) 年齡群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理想的인 子女數가 「돌난방기運動」과는 격차가 심하므로 젊은 年齡層을 위한 특별 家族計劃 自活指導體制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한 子女觀念에 대한 理想的인 子女數를 저하시키고 따라서 小家族構成으로 인한 個人의 經濟水準을 증대시키도록 한다.

6. 零細地域住民의 保健증진 및 生活水準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家族計劃을 주축으로 하는 綜合 保健事業(의료혜택)을 시범연구하여 都市人中 都市零細人에게 가족계획사업을 擴張強化 하여야 할 것이다.

7. 妊娠婦 및 嬰幼兒의 健康管理, 衛生施設改善의 斡旋 및 社會事業 支援을 零細地域에 集中的으로 投入하여 家族計劃 實施者에게 政府에서 無料 醫療惠澤 및 社會支援(市營住宅入住優先權, 職業斡旋等)을 우선적으로 받게 하여야 한다.

<Abstract>

Family Planning Status and Dissemination of Contraceptive Methods in Urban Slum Areas

by **Kyoung Sik Cho***

In order to cope with the problems brought about by the ever increasing population of the urban slum, the Government officially adopted an urban slum family planning project in May 1974 as a part of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It can be assumed that the requirements as well as the urgency of family planning must have a quite different implication for the medium-size city slum residents who are economically as well as socially handicapped compared to the general citizen.

The findings obtained from the family planning status survey in an urban slum area (Jeonnam province, Yeo soo city), conducted by the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of 414 married woman aged 20-44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Family Planning

Exposure to the term "family planning" is very high: Eighty-five percent of all respondents said that they had either heard or seen the term before.

Specifically, health centers and family planning field workers ranked high (47%) as the sources for awareness of the term.

The rate (76.6%) of approval of the concept of family planning was somewhat low compared with that in Seoul slum areas (88.1%).

Seventy-nine percent of the respondents indicated that they strongly agree with the current new slogan, "Daughter-son, without distinction: Stop at two, and raise them well".

About half of the woman respondents (50.5%) reported that they decided to practice family planning after having discussed it with their husbands.

Those women who were currently practicing contraception rated 25.8 percent for the sample area, considerably lower than the Seoul slum areas (33.9%).

A considerably 37.4 percent and 29.0 percent of those women who were currently practicing contraception were using the loop(IUD) and the oral pill, respectively.

Socio-Economic Status of Respondents

Sixty-five percent of all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were born in rural areas.

*Researcher, KIFP

A majority (64.8%) felt that a nuclear family is ideal.

The number of slum residents who replied that family composition "depends on circumstances" (7.2%) together with the number favoring a nuclear family suggests that a transition from the traditional extended family system is underway.

According to the respondents socio-economical appraisal, more than half (53.4%) of all respondents said that they belong to the lowest class.

The households with a monthly income of less than 15,000 won comprised 39.1 percent, while those without a monthly income constituted 3.6 percent of the total.

A direct indic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programs in slum area can be seen in the fact that 94.7% of all women delivered their last child at home.

Non professional personnel were the most commonly reported attendants at the delivery of the last child.

Information, Education and Communication Activities of Family Planning

Only fourteen percent of the respondents replied that they had never attended any family planning meeting.

Seventy-one percent reported that they have never received any family planning materials (leaflets, etc.).

This is readily understandable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upper income classes have more access to various mass media than those with lower incomes.

Specialized IEC materials, field workers and new mothers clubs should be set up in urban slum areas.

Therefore, pre-service and in-service training programs for field workers and new mothers club leaders should be enriched with new approaches, together with sufficient background material, so that the workers can communicate effectively, given the frame of reference of slum residen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Of the 414 married women surveyed, those in the ages under 34 comprised more than half (64%).

The age distribution of the slum woman did not present any noticeable contrast with that in the Seoul slum areas, while the illiteracy rate was much higher and the educational level much lower.

About 95.2% of respondents were currently living with their husbands.

Then asked about their ability to become pregnant, 83.3 percent indicated that they thought they could become pregnant at any time and 11.1 percent felt they were subfecund.

The average ideal number of children per woman was 3.4, slightly higher than the 2.9 figure in the Seoul slum survey.

However, there is still a strong residual preference for male children.

The age at first marriage was 20.6 years. The average number of living children was 3.2 children (Seoul slum survey; 2.8 children), while the proportion of high parity woman were seen to be some what higher among the slum womnan.

A greater proportion of higher parity women in the slum area certainly indicates a high potentiality existing in the area in terms of the need for family planning.

A considerable proportion of the woman in the slum areas did not want to have additional children: these could be regarded as those immediately requiring the practice of family planning.

A pattern of induced abortions in slum areas has been found with woman of each age group and this assumedly is attributable to the handicapped educational and economic levels of the woman in the slum areas. The average number of pregnancies per woman was 4.3. The average number of live births per woman was 3.4.